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금향로가 차기까지

November 2019



Unfinished Task
400 미전도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45 페이지

contents

발행인단신	22 쿠르드에 대한 터키의 두 갈래 전략
5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스 (Kingdom Business Partners)	24 터키의 시리아 공세는 민족 분열을 심화시킨다
안나의 고향	중동지역의 오늘
8 타작마당에서 만나는 하나님	26 영국출신 IS들이 낳은 6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시리아 북부에 고립돼 있다
특별기고	28 알카에다, IS,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서방의 기회
10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공격 평화의 샘 작전 (2)	ITN 현장스케치
15 선교와 난민 독일중심으로 살펴본 역사와 정책 변화 (2)	32 터키 기독교 글로벌 컨퍼런스 부루슈마 녹타스 2019
타키는 지금	38 KBP 비전트립
21 에르도안 대통령의 시리아를 넘어선 야망 - 그는 핵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2019년 11월 29일 통권 111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김룻, 김은현, 이은옥, 장영미
 디자인: 민은경
 번역: 손나래,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표지설명:
Unfinished Task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p.45)

실크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e-mail: info@silkwavemission.com

실크웨이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안길 33 1층
 Tel: 010-2100-4237

실크웨이브 USA

운영이사진:
이 사장 김용훈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부이사장 손경일 목사 (새누리 교회)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운영이사 강남수목사 (뉴저지만민교회)
 강민수목사 (레이크뷰연합교회)
 고희목사 (뉴욕하은교회)
 권준목사 (시애틀형제교회)
 권혁천목사 (상황중앙장로교회)
 김경진목사 (기쁜우리교회)
 김성기선교사 (SWM선교회)
 김성민목사 (오래곧새로운교회)
 김영하목사 (헉스빌한인장로교회)
 김태형목사 (ANC은누리교회)
 김학진목사 (뉴욕장로교회)
 김한오목사 (배달교회)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방상용목사 (세리투스선교회)
 윤명호목사 (뉴저지동산교회)
 이강택목사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이두영목사 (오렌지소망교회)
 이상훈목사 (주비전교회)
 이세웅선교사 (SWM선교회)
 이진수목사 (뉴비전교회)
 이형석목사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장경일목사 (원퍼밀리교회)
 전진석목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정찬수목사 (빛나교회)

순회선교사: 이문희 목사, 홍원기 목사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척운동)
 남가주해오름교회 (송주환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음교회 (이충남목사, Teaneck, NJ)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성광장로교회 (이철훈목사, Los Angeles, CA)
 엘메이연합교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교회 (전형진목사, Colorado Springs, CO)

실크웨이브 KOREA

운영이사진:
이 사장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부이사장 김만섭 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진영 선교사 (SWM 국제/미국 대표)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영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예클레시아선교회)
 이찬영 목사 (떡계교회)
 조승현 목사 (뉴웨이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SWM 선교회)

후원교회:
 새소교회 (김병동 목사)
 세종 빛과소금교회 (백현우 목사)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연말 후원

세금공제를 위해 연말 후원할 곳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SWM 선교회가 있습니다!

킹덤사역후원 + 세금공제혜택

연말후원하기

사랑하는 동역자님,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해 2019년의 세금공제를 위해 기부할 곳을 찾으신다면
Red Cross나 American Cancer Society 같은 곳에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SWM 선교회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연말 기부할 곳을 찾는 분이나 회사가 있다면
SWM 선교회에 헌금하실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보내시는 방법

Pay to the Order of : Silk Wave Mission

주소: Silk Wave Mission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메모: 연말특별헌금

관련문의: 이은옥 간사(eunice@silkwavemission.com)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이번 40일(10월 15일-11월 23일)의 사역 일정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 SWM 리더십 위에 하나님의 연합의 영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늘 허락하셔서 모든 결정들과 사역들 위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이번 KBP와 CPRT 비전트립에 참석하신 모든 동역자들의 삶과 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시대 영적 대 추수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전략이 부여지게 하소서!
- 터키와 이집트와 시리아의 교회개척자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온세상 모든 민족에게 속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없는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소서! 이시대 주님의 교회들이 눈을 들어 희게 된 추수밭을 보게 하소서!
-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여지게 하시고(요엘 2장), 이스마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사60장), 이사야 19장의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시122:6)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겔 37:1-14)를 속히 일으키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대하 7:14) 영을 부으소서!
-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님의 교회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스 (Kingdom Business Partners)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시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이방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선택하십니다(스 1:1-3).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 왕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사 45:3).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대추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재물을 드릴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흑암 중의 보화는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있는 오일 머니이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유대인들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오일 머니와 유대인의 재물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크리스천 비즈니스 기업에 옮겨 주시고 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슬람권 가운데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 교회개척운동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약 20년 전, 미국의 7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자신의 파운데이션(Foundation)과 기업의 이익을 하나님 나라, 특히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240억 원의 재정을 모았습니다. 이 재정은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아랍어 TV 방송, 라디오 방송 등 큰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7명으로 시작한 이 기금은 현재 30명의 기업인들이 연합하여 지난 20년 동안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2,400억 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연합하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하나





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슬람권의 난민들 가운데 속히 전도자와 교회개척자들을 세우고 마지막 대주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하나님께서 터키 교회개척, 그리고 터키에 흩어진 나그네 된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난민 약 450만 명을 향한 교회개척운동을 위해 교회개척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또한 아르메니아와 이집트 선교사인 아랍어권 교회개척자들과 동역하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현지 교회개척자 44가정에 여러 교회들과 후원자들을 연결하여 교회개척을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터키는 시리아를 침공하여 시리아와 터키 국경을 연결하는 안전지대를 점령하고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360만 명 가운데 백만 명 이상의 난민들을 강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와 있는 아프간, 이란, 이라크 난민들은 이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난민 지위를 받고 5-10년 후에는 제3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슬람권 교회개척운동을 위해 교회개척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스(Kingdom Business Partners)라는 비영리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SWM USA의 각 운영 이사 목사님께서 추천하시는 비즈니스맨/우먼이 이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스 사역의 목적은 현지 교회개척자들을 세우고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교회개척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이 교회개척기금은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첫째: 현지 교회개척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현지 교회개척자들의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셋째: 교회개척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예배 장소, 성경 배포, 전도사역 등)를 지원합니다.

교회개척기금을 통해 현재 44가정(터키, 아프간/이란/이라크/시리아 난민, 이집트, 아르메니아 교회개척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5-6가정을 더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300가정을 지원할 목표를 세우고 교회개척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터키 교회와





난민교회가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 비즈니스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슬람권 가운데 교회개혁운동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마지막 대추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 교회개혁자들이 땅끝까지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교회를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9일-26일까지 KBP의 이사 8명, 회원 4명이 첫 비전트립에 참가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늘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어 이 땅과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전트립 가운데 현지 교회개혁자들의 간증,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명확한 비전과 뜻을 갖게 되었고 현지 교회와 개혁자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기도하며 전략들을 세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자유케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나의 골방 11월의 기도

타작마당에서 만나는 하나님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타작마당의 주인이 되어서
그 곳에서 키질을 하고 계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계절을 만나게 됩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그분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질투하시는 사랑,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타작마당에서 만나는 그분을 향해서
“이것이 당신의 질투하시는 사랑이군요.
신부의 전부를 얻으시기 위해,
신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시군요.
당신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 섞이길 원치 않으셔서 보내시는
당신의 소멸하는 불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곳,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하시는지,
그리고 그때가 어느 시즌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오는 중,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분의 존재를 만났는지
갑자기 소가 뛰고,
그 급박한 상황에 옷사가
그 언약궤의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내밀어 언약궤에 손을 대었을 때
그곳에서 옷사가 즉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임재와 영광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로 달함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한발을 내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인가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눈감아 주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당신의 보좌를 내리고 싶어하시는
열정과 간절함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방법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전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열정과 신부를 향한 사랑이
오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나의 임재와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섬기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내 앞에 나아오라.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야 한다.
내 사랑이 그 무엇하고도 섞이길 원치 않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웃사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쪽정이를 키질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걸러내시며,
당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당신의 방법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그분의 타협할수 없는 마음을 드러내시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아시고
그 마음 안의 쪽정이들을 불로 태우시면서
당신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이시는 하나님!
그 죽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사랑이시며, 당신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계시가
우리 안에 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 죽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께 속하지 않는,
어둠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좇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죽어야 할 것들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려고 하고,
영향력을 주는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죽이시는 그 하나님임을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타작마당의 주인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 어둠에 속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속히 죽이시도록 앞드려야 할 때입니다.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공격 평화의 샘 작전 (2)

글: 김선희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김선희 사역자의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공격'은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연재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 서론
 - 터키 시리아 북동부의 영토를 장악한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
- 11월** -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과 시리아 민주 연합군 SDF 반응
 -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과 다민족들의 반응
 - 바벨론의 징계와 메대 민족들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과 시리아 민주 연합군 SDF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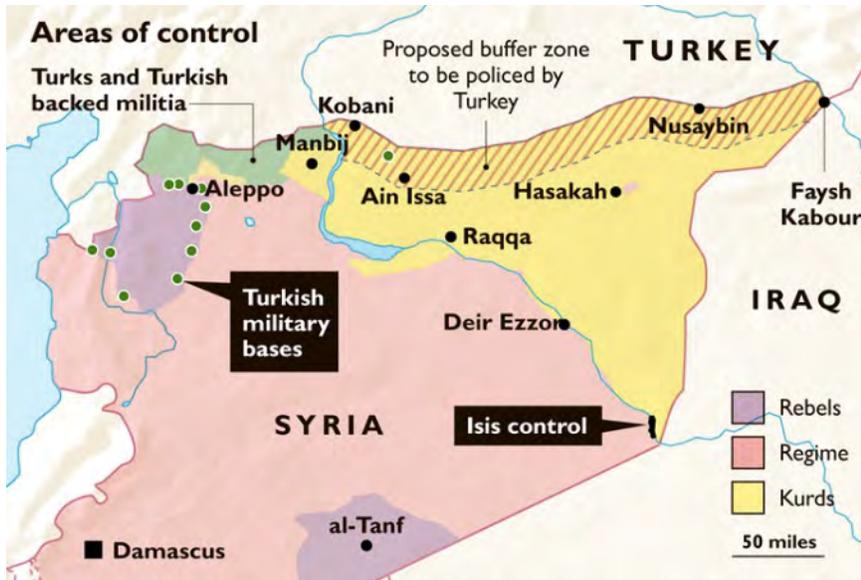
시리아 북동부에 사는 약 180만 명의 쿠르드 민족의 절반 이상은 터키 정부가 제안한 '비무장지대/ 안전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경 근처의 터키군의 침공은 '쿠르드 전멸 작전'이라고 하여 시리아 민주 연합군 SDF사이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시리아 민주 연합군 SDF통제 지역에는 약150만 명의 아랍인과 수만 명의 정교회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들은 시리아의 북동부의 개방된 평원을 터키군의 침략으로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을 남쪽으로 이동하여 인근의 이라크 쿠르디스탄으로 SDF 통제 지역으로 도망칠 것이다. '시리아 민주 연합군 SDF'는 자국민 방어 및 보호 아래서, 이슬람 테러 무장 집단 IS에 저항하는 군사 훈련을 받아왔다. 하지만 나토의 동맹국인 터키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군사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2018년 12월 트럼프는 '이슬람 무장 테러 세력 IS'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완전히 참패했기 때문에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약 이천 명의 미군이 철수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군의 철수에 당황한 터키는 신중하게 대처했으며, 올해 8월에 발표한 시리아 북동부의 "비무장 안전지대"를 설립하기 위하여 공동 안보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터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위하여 서로가 절충안을 찾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태에서 합의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시리아 쿠르드에 대한 터키의 우려와 함께 '시리아 연합군 SDF'는 국경을 따라 공동 순찰 방어를 추진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군을 국경에서 철수 시키겠다는 발표에 배신을 당했다고 '시리아 민주 연합군 SDF'는 말하면서 미군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경에서 철수하여 이 지역을 전쟁 지역으로 다시 바꾸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리아 민주 연합군 SDF'는 모든 힘을 다하여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리아 북동부의 30개 이상의 포로 수용소에 약 11,000명의 IS 수용자가 있으며,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알홀이라고 알려진 내부 이재민 캠프는 수천 명의 IS 가족을 포함 약 70,000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국제 정책 센터의 '이슬람 무장 테러 집단' 전문가 하산은 테러 집단이 터키군의 침략으로부터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터키가 현재 통제할 지역은 부정 부패로 가득하다. 이슬람 무장 테러 집단 IS의 정보를 뇌물을 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 기반을 둔 전쟁 모니터 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라스 알-아인과 인근 마을의 민간인들이 쿠르드족 지역 내 더 깊이 도망 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SDF의 주요 행정 센터인 콰미쉬리와 아인이사가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³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과 다민족들의 반응

터키군의 공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 민간인들과 사상자는 이미 사백여 명이 넘었다. 터키의 공세는 트럼프와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사이의 묵시적인 합작극이며, 일

1. <https://time.com/5694437/turkey-syria-trump-ypg-kurds/>
 2. <https://books.google.com.tr/books?id=-khxBgAAQBAJ&printsec=frontcover#v=onepage&q&f=false>
 3. <https://www.aljazeera.com/news/2019/10/world-reacts-turkey-military-operation-northeast-syria-191009181335266.html>



요일 저녁 미군이 갑자기 철수 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시작된 것이다.

터키 시리아의 북동부 국경 지역에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버리고 피난가야하는 상황이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은 다민족으로 혼합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쿠르드족이 대부분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순니파 이슬람 이라인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더 작은 그룹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유엔은 2018년, 쿠르드족이 터키에서 쿠르드족 아프린 지역으로 137,000명이 추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은 터키의 남동쪽에 있는 쿠르드족, 이란 서쪽에 있는 쿠르드족, 시리아 북동쪽에 있는 쿠르드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 작전이 시작되면서 수천 명의 쿠르드족 민간인들이 국경 도시를 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쿠르드족이 자신의 나라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서러움의 반작용으로 여러가지 테러집단 PKK/YPG/IS에 들어가 저항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쿠르드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조약이 있었다. 이것은 세브르 조약과 로잔 조약이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이 무너졌을 때, 첫 조약에서 쿠르드족은 자신의 국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조약은 몇 년 후, 두 번째 조약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리고 쿠르드족은 기본적으로 중동과 관련된 중요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찾기가 힘들었다. 현재 쿠르드 민족은 중동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기에 그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쿠르드족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교육하고, 지방 자치 방어권과 지방 자치 경제 독립권을 가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투쟁과 고통이 따른다.

쿠르드 민족은 그들이 사는 지역인 터키, 시리아, 이란 등에서 마음 놓고 모국어를 구사하고 자신의 아이들이 모국어를 교육받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그 날이 오기를 갈망하고 있다.

4.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50004203>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의 지역에 사는 쿠르드족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 독립 국가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라크, 이란, 시리아와 터키 등은 쿠르드족이 독립적인 쿠르디스탄 국가를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쿠르드족이 국가를 형성하고 살기를 원하는 지역은 이라크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생산지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이곳의 이슬람 무장 테러 집단인 IS는 이라크 정부를 전복시키고 모든 이라크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사리아 법에 따라 지하드주의 국가를 설립하며 이라크를 시작으로 지역적,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이슬람 칼리프 왕국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르드족은 일반적으로 순니파 무슬림이지만 인종적으로는 아랍인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쿠르드족은 아랍인들을 향해 깊은 미움을 가지고 있다. 수십 년 전, 사담 후세인이 화학 무기 등을 사용하여 쿠르드 민족을 공격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다. 그 이후, 이라크 북부지역에는 특별 쿠르드 보호 자치 지역구가 조성되었다.

바벨론의 징계와 메대 민족들

구약에 보면 메대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지금의 쿠르드 민족이며 풍부한 석유가 있는 이라크 지역을 점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아랍인들이 권력을 얻게 되고 바벨론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메대인들에게 힘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은 악의 진원지로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와있다.

히브리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될 것이며 심판이 완료되면 바벨론은 완전히 살 수 없게 될 곳임을 알려 준다. 바벨론에 대해 이사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 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 13:20).

“보라...메대 사람을 내가 총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사 13:17)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찰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렘 51:28-29)

5. <https://flashtrafficblog.wordpress.com/2014/06/17/with-prophetic-implications-the-kurds-known-as-the-medes-in-the-bible-seize-oil-rich-region-of-iraq/>



사실 위의 종말론적 예언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다.⁵

우리가 바벨론 땅에 더 이상 주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듣는 자들 즉 쿠르드 민족을 향해 주님의 계획을 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 작전에서 투르크와 쿠르드 민족을 향하여 "수세기 동안 서로 싸우고 있다"며 침략을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유엔은 시리아 난민을 위해 46억 3천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헬싱키 행사에서 시작된 자금 지원은 470만 명의 난민과 이들을 보호하는 인근 국가들의 결정적인 경제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

선교와 난민 독일중심으로 살펴본 역사와 정책 변화 (2)



글: 김성훈 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소,
ARILAC

김성훈 선교사의 '선교와 난민'은 10월, 11월, 12월 3회에 걸쳐서 연재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 개요
 - 20세기 유럽, 독일 인구 이동과 난민의 역사
 - 20-21세기 독일의 난민 정책과 그 변화
- 11월** - 독일의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절차
 - 현재 진행되는 제도적, 비제도적 난민 사역들
- 12월** - 앞으로 남은 과제

독일의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절차

독일은 난민이 도착하면 분배 시스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16개주에 잠정 배치된다.

Bundesland	Quote
Baden-Wuerttemberg	13,01651%
Bavaria	15,55039%
Berlin	5,09267%
Brandenburg	3,02571%
Bremen	0,95115%
Hamburg	2,55847%
Hesse	7,36424%
Mecklenburg-West Pomerania	2,00161%
Lower Saxony	9,36559%
North Rhine-Westphalia	21,14355%
Rhineland-Palatinate	4,83466%
Saarland	1,20344%
Saxony	5,02467%
Saxony-Anhalt	2,77158%
Schleswig-Holstein	3,41725%
Thuringia	2,67851%

Date 16 May 2019

그 이후에는 정착과 관련한 서류등을 작성후 거주증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독일에 머물게 허락된다. 머무는 동안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소위 더블린 절차를 연방 사무국에서 거치게 되고 개별적인 인터뷰에서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임시거주증을 발급후 3-5년 후에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난민 판정을 위한 개별 인터뷰이다. 연방 정부 사무국은 난민 신청자 서류의 진위여부와 개별적인 확인작업을 면밀하게 한 후 최종적으로 독일 정부의 망명 조례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판정한다. 첫째 등급은 난민지위 인정, 둘째 등급은 난민 보호 지위, 세번째는 부차적 보호지위, 마지막으로 임시 수용지위로 나누어 체류를 허용하고 이 외에는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게 된다. 체류가 거절된 자는 두 등급으로 분류되며 30일내, 일주일내 각각 독일을 떠나야 하며, 원하는 경우 어필을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제도적, 비제도적 난민 사역들

독일에서 난민과 관련하여 돕는 제도적 종교기관들은 카톨릭 교단의 카리타스와 독일 국가교회(EKD)의 디아코니가 있고 그외 자유복음교단(FEG)의 알리안츠 미션과 다양한 선교관련 단체들이 있다.

카톨릭 교단의 카리타스는 1895년에 베르트만이 카리타스 코미테를 창단한 후 1987년 11월 9일에 정식으로 독일 카톨릭 카리타스협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필요들, 즉 알콜 중독자, 청소년, 성적 전염병 등을 돕는 사역으로 출발한 후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전국 조직으로 체계를 갖추고 나치 시절에도 국가의 감시속에서 단체가 발전되어 나갔다. 최근에 난민이 쓰나미 처럼 몰려오면서 카리타스도 이들을 돕기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갔다. 크게는 긴급구호,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중장기 지원, 난민신청시 상담과 지원, 사회통합 지원등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해 왔다. 긴급 구호는 독일 카리타스 기관중에 말테제 긴급 케어가 주로 맡아 하며, 다양한 지역에 대규모 텐트나 거주지를 마련하고 주요 기차역 주변의 노숙자들을 케어하고 다양한 케어 기관들과 연계사역을 하고 있다.

중장기 정착 프로그램으로 난민신청을 도와주고 통합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돕고, 노동시장을 통해 직업을 갖도록 돕는 일을 한다. 전국적으로 30명의 법률 자문가들을 통

1 이분배시스템을EASY quota system(Initial Distribution of Asylum-Seekers)이라고 연방정부 담당 부처에서매년적정한비율로각주로배정한다.

2 표의출처는www.bamf.de 임.

해 법적인 지문을 받으며, 강제출국을 당하는 자들이 인권을 보호받도록 감시하는 일도 한다. 라파엘 사역을 통해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자들을 상담하고 돕는 일도 하고 있다. 특히 고문, 트라우마등 심리 상담과 치유를 위한 센터를 세워 운영하고 교육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민 자문 센터(MBE)를 전국적으로 230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 사업은 전국에 110개소를 열어 27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카리타스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던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을 위해 국경지대와 레바논, 요르단, 터키 국경지대에서 긴급한 구호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구호금 1천 백만 유로를 받아 50만 명의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을 도왔으나 점점 더 지원비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독일 개신교 국가교회(EKD: Evangelische Kirche Deutschland)는 난민 지원 서비스를 디아코니로 불리는 사회 지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디아코니는 세계의 단체가 연합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독일 디아코니, 세상을 위한 빵, 그리고 디아코니 재난구호가 파트너십으로, EDK 산하 개신교 디아코니 개발 부서에 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중 독일 디아코니³⁾의 사회정책부서 산하의 이민과 사회 이슈분과에서 난민 문제를 관장하고 있다. 자세한 조직 구성은 아래의 표⁴⁾를 참고하기 바란다.

Social Policy Maria Loheide	President Diakonie Deutschland Ulrich Lillie	Finance, Human Resources, Organisation, Law and Economy Dr. Jörg Kruttschnitt	President Brot für die Welt Dr. h. c. Cornelia Füllkrug-Weitzel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ogrammes Dr. h. c. Cornelia Füllkrug-Weitzel (interim)
Executive Staff		Labour Law Commission Office Axel de Frenne	Policy, Dialogue, and Theology Thilo Hoppe	Programme Coordination Robert Mehr
Children, Youth, Family, and Women Doris Beneke	Communication Dr. Thomas Schiller	Finance Torsten Müller	Results Management, Internal Audit, and Compliance Harriet Désor	International Personnel Services Elke Bosch
Health, Rehabilitation, and Care Dr. Peter Bartmann	Missionary Services Dr. Erhard Berneburg	Human Resources Patrick Wasmund	Strategic Management Harald Keuchel	Africa Reinhard Palm
Migration and Social Issues Petra Zwickert		Organisation Jerg Bosch	Diakonie Katastrophenhilfe (Humanitarian Aid) Martin Kessler	Latin America and Caribbean Danuta Sacher
Volunteering, Democracy and Civil society Ingo Grastorf		Legal Services Lutz Möhring-Lawall	Public Relations and Cooperation Dieter Pool	Middle East, Caucasus, Asia, and Pacific Oliver Märtn
		Law and Business Dr. Natascha Sasserath-Alberti	Policy Dr. Klaus Seitz	European and Worldwide Programmes Ilonka Boltze
		Third-Party Funding Evelyn Moeck		

디아코니의 난민 지원 서비스는 다섯 부류로 분류되는데 1.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 2. 가족의 재결합 지원, 3. 연고없이 입국하는 난민 지원, 4. EU국가에서 들어오는 망명자들의 사회적 지원, 5. 구직을 위한 이민자와 지속적 관리 등의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중에 하나는 하이델베르그로서 NGO Asylarbeitskries Heidelberg, Caritas Verband Heidelberg e.V 및 하이델베르그 시와 더불어 연합으로 일단 지역내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장단기 체류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난민 상담 센터(PHV)에서는 사회 보장과 망명신청에 관한 지원, 지원자들의 관리, 지역사회와 거리사역, 숙소제공, 지역사회단체와 연결, 이민 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제도적 교회 외에 복음주의 개신교 기관들 중에는 FEG(Bund Freier evangelischer Gemeinden in Deutschland) 산하의 Allianz-Mission e.V가 있다. 이 단체는 그동안 타문화에서 훈련된 많은 사역자들이 참여하여 난민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외자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역교회들을 훈련하고 동원하기 위한 교회지도자와 선교부등을 지원하는 상담, 난민들을 돕기위한 자원자 훈련, 다양한 언어(이란, 아랍, 러시아, 영어, 스페인어등)로 훈련하는 단체등과 더불어 난민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교재개발, 각종 트라우마 치료과정, 이슬람 이해, 다문화 갈등 극복 훈련, 국제 공동체 형성, 난민 현장의 초교파적 사역, 이민자들의 지역 통합 사역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버스바흐 개신교 신학 대학교와 협력으로 선교학 학사및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단배경을 가진 난민 사역 조직외에 연합사역을 통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사역하는 조직인 AMIN(The Migration and Integration Working Group: www.amin-deutschland.de)이 있다. 이 단체는 이민자들 가운데 선교사역과 사회봉사및 목회적 돌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5년에 설립되어 독일 복음주의 연맹의 실천 그룹이며 복음주의 연맹 지역 조직들이

3 독일 디아코니가 하는 일: - 28,100 inpatient and outpatient care centres - from nursing homes and hospitals to community outreach and welfare centres, - 545,500 places in child care services, - 171,000 places in elderly care and 153,000 places in disabled care services, - 450,000 full- or part-time employees, - The work of 700,000 volunteers, -3,300 self-help groups organised by the agency, - The charity work of 18,000 parishes belonging to both member and independent churches.

4 www.ekd.de 에서발췌함.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독일 내 다양한 다민족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룹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민과 난민 문제에 독일 복음주의 연맹과 더불어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독일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같은 신앙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가능한 방법을 다하고 있다. AMIN은 현재 396 개의 전국 지역 센터와 30개의 미션 파트너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전략적인 난민 훈련 사역의 일환으로 필자가 함께 시작한 Equip7

Learning community/ARILAC(Area Research and Integral Learning Community: www.arilac.org)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유럽의 20여개 파트너들과 처음으로 시작된 이 학습공동체는 스리랑카의 타밀난민, 이란 난민들과 더불어 매년 두차례 독일의 파트너인 DMG (Sinsheim, Germany)와 더불어 난민 기독교 지도자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 한동대에서 총체적 미션을 훈련하는 ARILAC단체와 더불어 독일 중심으로 자료 개발과 비제도교육을 통한 총체적 사역의 확장을 위해 글로벌 센터를 출범하고 현재 다양한 난민/디아스포라 사역기관들과 훈련 협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집트, 터키를 중심으로 한 아랍인/터키인 대상으로 Equip7 학습 공동체가 출범중이며 계속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도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 독일내 난민 사역에 참여하는 복음주의 단체와 유형은 난민 훈련 사역(Equip7: Learning Community, Oriental Leaders Project, 아프간 난민 훈련 사역, 이란인 사역-Elam Ministry, Pamir Production Afghan Christian Media, ForumWiedenst 등), 전도 및 방문 사역(The Church on the Road), 교회 사역(ICF, 웰런 다민족 교회, 모자이크 네트워크, Gemeindegründung in NO- Deutschland, Hoffnung Deutschland, CLW-Freie Christengemeinde Bonn, New Life Church Düsseldorf, BFP-Gemeinden etc.), 구제사역(Xenos-OM)등이 있다.

선교와 난민(3)은 12월에 계속 이어집니다.

참고 문헌

Blanca Garcés-Mascareñas & Rinus Pennix, I. Introduction: Integration as a Three-way Process Approach?, in *Integration Processes and Policies in Europe*, Springer Cham Heidelberg New York Dordrecht London, 2016.

C. Van Mol & H. de Valk, *Migration and Immigrants in Europe: A Historical and*

- Demographic Perspective, in B. Garces-Mascareñas, R. Penninx(eds.), *Integration Processes and Policies in Europe*, IMISCOE Research Series, 2016, pp.31 - 45.
- Diakonie Emergency Aid calls for a new refugee policy, on Jul 23 2015, excerpted from *Ecumenical News International*, in www.archiv.ekd.de on Aug 27 2019.
- Engler, Marcus, Germany in the refugee crisis-background, reactions and challeng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Impact of the Migrant Crisis on Germany and European Union held in Poznan on April 26, 2016, organized jointly by the Institute for Western Affairs and the Heinrich Böll Foundation.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2016 통계
- Gatrell, Peter, *Free world? The Campaign to Save the World's Refugees, 1956-1963, The Making of the Modern Refugee*
- Gatrell, Peter, Refugee-what's wrong with history?, *Journal of Refugee Studies*, vol. 30, no.2, 2017, 170-89(178).
- Gil Loescher,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historical research in Refugee Studies, presented at the workshop, "History and Memory in Refugee Research" of the DFG-Netzwerk Grundlagen der Flüchtlingsforschung, on Feb. 16 2016.
- Groody, Daniel G., *Crossing the Divide: Foundations of a Theology of Migration and Refugees*, *Theological Studies*, vol. 70, Sage Publications, 2009. 644.
- Ottolino, Jen, *The Emic and Etic in Practice: Working with Refugees in Chios, Greece*, excerpted from *Practicing*
- Emic and Etic, in www.programs.online.american.edu on Aug 29 2019.
- R. Pennix, M. M. Merger, & K. Kraal,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ettlement in Europe*,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4.
- 박명선, 독일이주민통합정책,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시리즈, 2006년 겨울호



에르도안 대통령의 시리아를 넘어선 야망 그는 핵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글: 데이비드 샌저 &
윌리엄 브로드
번역: 한국 번역팀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터키의 앙카라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Burhan Ozbilici/Associated Press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를 넘어 그의 통제의 범위를 더 넓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핵 폭탄을 원한다고 말했다.

몇 주 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의 쿠르드 지역에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큰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9월 여당 회의에서, “일부 국가는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우리(터키)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터키는 지금 나토 동맹국들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리아로 군사침공을 감행하고 승리를 거둔 상태에 있다. 이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위협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미국이 터키 지도자가 쿠르드 동맹국들을 이동 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터키 지도자인 에르도안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이란을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주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터키 독재자는 동맹과 적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명수이다.

<Source: <https://www.nytimes.com/2019/10/20/world/middleeast/erdogan-turkey-nuclear-weapons-trump.html>>





쿠르드에 대한 터키의 두 갈래 전략

글: 곡한 바즉

번역: 한국 번역팀



터키의 쿠르드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국내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적으로 쿠르드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친쿠르드당인 인민민주당(HDP)이 다른 야당들과 연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거에 있어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공화인민당과 정의개발당 사이에 이루어진 연대로 인해 최근 몇 년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국외적으로는 쿠르드족이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독자적으로 국제관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치세력을 시리아 북동부에 형성했다.

터키는 쿠르드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갈래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HDP의 선거 연합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터키가 시리아 내 국경을 따라 안전지대 구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 북부 지역에 설치된 안전지대의 사례를 보면 터키가 시리아에 비슷한 것을 만들려는 이유는 쉽게 알 수 없다. 안전지대는 정치적 현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난해 한 학술지 기사에서 케임브리지대 국제관계 강사인 스테파노 레키아는 안전지대를 만들게 되면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공격을 부추기는 베이스로 사용되는 등 분쟁 확대 위험을 높이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터키 정부는 성공과 외교 정책에서의 승리를 위해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터키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쿠르드족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세속적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과 야당인 민족주의 좋은당 그리고 HDP 사이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터키 정부의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탄불의 에크렘 이마모울루 CHP 시장은 쿠르드족의 남동부 지방을 방문하여 지난주 정부에 의해 해임된 세 명의 HDP 시장들과 만나 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쿠르드족에 대한 CHP 정책이 당의 사회민주적 견해를 따르게 될지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견해를 따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CHP와 좋은당, 그리고 HDP 간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 쿠르드족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 전략의 끔찍한 결과 중 하나는 터키 중부와 서부에 있는 쿠르드족을 악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 모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은 곧 출범할 AKP의 전직 인물인 아흐멧 다부토을루와 알리 바바칸이 이끄는 정당들이다. 이 정당들은 쿠르드 문제에 대한 논쟁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꼭한 비죽은 팔라기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현대 중동, 이슬람과 정치, 그리고 터키 정치이다.

〈출처: <https://ahvalnews.com/kurdish-issues/turkeys-two-pronged-strategy-against-kurds>〉





터키의 시리아 공세는 민족 분열을 심화시킨다

글: 디데 이요크
번역: 한국 번역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터키군의 군사 공세로 인해 터키 내 민족 분열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쿠르드족이 이 작전을 반대하고 터키군이 압도적으로 이 작전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 30km 너비의 안전지대를 설치해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 민주군(SDF)을 국경 인근 영토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리아 민주군을 쿠르드 노동자당(PKK)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터키는 쿠르드 노동자당이 30년 이상 터키 남동부 쿠르드족 영토에서 자치권을 위해 불법으로 싸워왔다고 생각한다. 쿠르드족 약 4만 명이 이 분쟁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리아 내전에서 터키 정부는 이슬람 반군 파벌을 지원하여 시리아 정부 뿐 아니라 세속적인 시리아 쿠르드족과 싸워왔다. 이것은 터키 내 분열을 심화시켜왔다. 터키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 사는 쿠르드족 여성 파트마 야부즈는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쿠르드족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나라가 쿠르드족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쿠르드족은 국가에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터키 정부는 터키가 이른바 테러 위협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을 향해 이번 공격을 전쟁이나 침략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쿠르드족과 아랍인들의 도시인 이스탄불 남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야사르 토커는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가 그것은 테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만이 그것을 테러라고 한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터키 야당들은 지난 3월 지방 선거에서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을 패배시키고 보기 드문 승리를 거뒀다. 야당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지자들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것을 촉구한 친쿠르드족 정당의 도움을 받았기 때





문이다.

야사르 토커는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성공한 제1야당 후보를 지지해왔지만, 지금은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곤경에 빠지면 언제나 애국심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애국심은 국민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어떤 사람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경기 침체로 인해 집권 정당인 정의개발당(AKP)의 지지가 잠식당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시리아 군사 작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터키군이 시리아 군사작전으로 쳐들어간 두 곳 중 하나인 터키의 산르우르과 지역의 제 일란프나르 마을에서 온 아즈미 바크르는 이렇게 말했다. “전투하러 간 사람들은 우리의 군인들이고 그들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친척들입니다.”

바크르는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리아 내전의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터키의 군사작전에 대해 SNS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100여 명을 체포했다.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터키 군사작전에 대해 옹호적이다. 마크블레 치첵치라는 35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여자로서 국가가 저를 부른다면,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유프라테스 서쪽과 동쪽에 있는 어느 곳이든 갈 것입니다.”

미국은 터키의 이번 군사 작전을 놓고 터키에 제재를 가했고 유럽 국가들은 터키에 무기 판매를 제한했다. 터키 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트 차크마크는 이렇게 말을 했다. “우리는 국경을 넘는 것으로 미국에 최고의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80년 동안 본질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5-16년간 그것을 되찾고 있습니다.”

〈출처: <https://ahvalnews-com.cdn.ampproject.org/c/s/ahvalnews.com/turkey-kurds/turkeys-syria-offensive-deepens-ethnic-divide-home?amp>〉





영국 출신 IS들이 낳은 6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시리아 북부에 고립돼 있다

글: 아리브 올라흐
번역: 한국 번역팀



2019년 7월 알하사케 수용소 안에서 한 소녀가 UNHCR 구호물품 옆에 앉아 있다(AFP)

기도제목

- 시리아 북부에 고립되어 있는 영국 출신 IS들이 낳은 6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구출되어 영국으로 돌아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 전쟁과 IS로 인한 폭력과 공포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 어린이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영국 출신 IS들이 낳은 6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시리아 북부에 고립돼 있어 당초 추정치의 두 배라고 어린이 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 (Save the Children: SC)'은 밝혔다. 이 자선단체는 고립된 영국 어린이들 중 많은 수가 5세 이하이며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아동 권리 자선단체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IS의 손에 의한 참수 등의 폭력적인 사건들을 목격하고 나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징후를 보였다고 한다.

SC는 IS의 거점이었던 바그다드에서 도주한 뒤 시리아 북부 수용소 안에 갇혀있던 두 명의 아이를 둔 영국인 어머니와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시리아에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시리아에 있는 영국 어린이 15명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 염려를 나타냈다. 이 여인은 영국으로 귀국이 허용된다면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SC 대변인인 앨리스 그리핀은 아이들은 죄가 없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영국 어린이들을 돌려보내 줄 것을 영국측에 촉구했다.

그리핀은 성명에서 "IS가 억류하고 있는 지역에서 탈출한 시리아의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의 짧은 삶은 폭력과 공포로 가득 차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다시 회복





되고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어른들의 결정으로 인해 이 어린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곳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들의 삶을 누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 영국 어린이들은 영국에서 돌봄을 받아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터키가 이달 초 시리아 북부 침공을 감행한 이후 쿠르드족이 운영하는 수용소에 억류된 IS 아이들의 안전과 행방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양카라가 5일간의 휴전을 발표한 후, 자선단체들은 영국 정부가 전투 소강상태를 이용해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요일, 영국은 가디언지에 정부가 시리아 북부에서 IS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시리아에서 영국 국적자로 태어난 어린이들을 돌려보낼지 말지를 놓고 망설여왔다.

하지만 영국 당국은 지난 12개월 동안 IS들이 낳은 어린이 중 적은 수의 어린이가 영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IS와 연계된 것으로 기소된 시민들을 대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선단체들은 IS 멤버들의 고립된 아이들을 돌려보내도록 영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출처: <https://www.middleeasteye.net/news/more-60-children-born-members-stranded-northern-syria>>





알카에다, IS,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서방의 기회

글: 로렌스 A. 프랭클린
번역: 손나래 (LA 연합교회)



2014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를 순찰 중인 미군 병사들. (스캇 올슨 사진/게티 이미지 출처)

세계에서 가장 우세한 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세력인 (지하디스트 네트워크)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IS)는 전 지구적인 칼리프국을 건설하고 세기말 마흐디의 시대를 앞당기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목표는 자유국민국가 제도를 전세계적 무슬림 공동체인 움마로 바꿔 놓는 것이지만 이들이 당면한 목표는 서로 다르다.

단기적으로 알카에다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압박하고 싶어하는 반면 IS는 세속화된 독재자들의 정권과 부패한 지배층과 독실하지 않은 무슬림 지식층들을 청산하고 싶어한다. 알카에다와 IS는 동료 무슬림들을 대하거나 비무슬림들을 개종시키는 방법과 전략에 있어서도 다른 의견을 보인다.

지난 7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분석제제 및 지원감시팀의 24번째 보고서”에 따르면 알카에다는 IS보다는 유연하고 순응적이며 더 인내심이 있는 단체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알카에다는 IS 보다 더 오래되었고 더 경험이 많은 단체이기에 테러 조직의 변천과 장기적인 계획에 보다 더 익숙한 편이다. 이런 경향은 1993년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후 수년간 준비해 실행에 옮긴 2001년 9. 11 테러에서 나타난다. 대다수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IS대원들보다 윗세대이다. 알카에다 간부단의 가장 연장자들은 “아랍 아프간들”인데 이들은 소련이 1979년 12월부터 1989년 2월까지 아프가니스





탄을 점령하고 있었던 소련에 저항한 반소련 지하드의 참전 용사들이다. 또한 대부분의 알카에다 리더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체 캠프에서 훈련받은 자들이다. 알카에다는 한 때 상명하달식의 조직이었으나 보다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의 반테러리스트 작전에 많은 리더들이 처형 당하거나 체포된 후 알카에다 스스로 이런 변화를 시작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IS는 알카에다보다 어린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2015년 100개국 이 넘는 곳에서 모여든 수많은 젊은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IS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 열성분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알카에다의 조직원들만큼 교육을 받거나 지적이지는 않으며 자신들이 지하드에 충성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무슬림들을 덜 용납하는 것으로 보인다.

IS지지자들은 또한 불신자들이 지즈야(인두세)를 내기로 서원하면 비록 제2급시민이라도 이슬람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을 용인하는 꾸란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있다. 한 예로 IS 무장 세력이 수백년간 니스웨 골짜기에 살고 있던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을 이라크 쿠르디스탄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처형했다. 아프가니스탄, 서아프리카, 시리아, 튀니지와 인도네시아의 지하디스트들 내부의 갈등은 알카에다와 IS의 다른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핵심 요소중 하나는 탈레반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 혹은 믿는 바로는 전쟁으로 피해를진 나라에서 미군이 대거 철수하고 자신들이 알카에다와의 지속적인 긴밀한 동맹을 맺음으로 IS를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는 탈레반의 안전한 피난처와 기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탈레반은 알카에다의 훈련 캠프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칸의 몇몇 지역에서 급상하고 있는 IS세력에 의해 탈레반-알카에다 연맹이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UN은 IS가 대략 3여명의 병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고 추산하였다. 게다가 현재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반대하는 일부 강경 노선의 탈레반 군사들이 IS로 넘어가고 있다.

서아프리카

2018년 2월, 보코 하람으로 잘 알려진 (번역하면 “서구화는 금지되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IS(ISWAP)는 나이지리아 북부 요베주의 수많은 젊은 무슬림 여성들을 납치하였다. 2010년부터 감옥에 수감 되어 있던 ISWAP의 원로 리더인 아부 바카 바쉬르는 놀랍게도 소녀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하였다. “ISWAP는 무슬림 소녀들을 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쉬르의 소위 “관대한” 태도는 2014년 자살 폭탄테러에 이용하기 위해 보코 하람이 나이지리아 치복의 여학생 200명 이상을 납치하여 공분을 샀던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일 것이다.

한편 ISWP는 군사적으로나 다른 문제들로 계속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나이지리아 공군 제트기가 반복적으로 ISWAP의 진지에 폭탄을 투하하여 많은 테러리스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토록 ISWAP의 미래에 비친 부정적인 기운으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알카에다 비밀 부대는 나이지리아 북부 무슬림 지역에 보다 서둘러 초기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곳에 알카에다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나이지리아는 마그레브 지역의 알카에다 세력(AQIM)과 연맹을 맺은 다양한 테러리스트 그룹들을 소탕하는 다국적 반테러리스트 운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다. AQIM 부대는 니제르와 국경을 접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 있다.

시리아

시리아에서 IS의 칼리프령을 체결함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8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알카에다는 바쉬르 알 아사드의 “변절자” 정권에 대항하여 보다 더 견고한 저항 세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IS 테러리스트들의 잔인함은 그들 정권의 몰락에 큰 기여를 하였다. 알카에다도 냉혹하게 자신들의 지배 영토를 다스리지만 IS가 정복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비하면 덜 잔혹한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반군의 편에 남아있는 시리아의 서북 지역 이дли브 주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дли브를 압박하고 있는 알카에다의 세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곳과 주변 지역은 라타키아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한 때 해군과 공군 기지로 몇십년간 사용했던 곳이다. 따라서 라카에서 IS가 무너진 것과 비교하면 시리아 반군에게 알카에다는 매우 위협적 존재로 보인다.

튀니지

튀니지의 알카에다 조직원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소련군과 대항해 벌인 무자헤딘 전쟁 (1979-1989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대항해 싸우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을 모집함에 따라 IS에 가담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 일부는 시리아에 있을 때 이미 IS에 가담하였다. 다른 이들은 튀니지 국경 너머로 공격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리비아로 이주하였다.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테러리스트 연합체인 자미야트 이슬라미야 하에서 알카에다가 오랜 기간동안 인도네시아의 주요 지하드 분파로 존재해 왔지만 IS도 주목할만한 입지를 다져오고 있었다. 이로 인해 2017년 인도네시아의 군 사령관인 가토티 누르만트요 장군은 “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에 IS부대가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누르만트요의 경고는 인근 필리핀의 마라위가 IS와 연맹을 맺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포위된 사건에 일부 기인한 것이다.

서방 세계는 알카에다와 IS사이의 전 세계적 경쟁을 지켜보며 마냥 기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경쟁은 각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들이 다음 세대 지하디스트들에게 더 강력하게 어필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두 단체 모두 미국 군사력의 타겟이 되어있기에 자신만의 생존 법칙들을 개발하여왔다. 이들은 모두 소셜 미디어에 선동력을 보강하여 더 많은 젊은 무슬림들이 극단적으로 바뀌는데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

아프가니스탄의 친서방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미 그 곳에 존재하고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분쟁이 그치지 않고 약속을 지킬 것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군사력을 철수하기보다는 적절한 자취를 남겨 놓는 것이 현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와 이라크를 완전히 버려두어 후에 이 곳에 테러리스트들이 창궐하게 만든 것과 같이 이 곳을 완전히 버려두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다. 갈수록 압박이 더 어려워지는 상태로 살아가느냐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버려진 중동 땅에서 IS를 상대한 것과 같이 그곳을 다시 차지하느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동에 대해 꿈꾸던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이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인명과 재산을 훨씬 덜 소모한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로렌스 A. 프랭클린 박사는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의 이란 책임자였다. 그는 미공군 대령으로 복무하였다.

<출처: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4739/al-qaeda-isis>>



ITN 현장 스케치



터키 기독교 글로벌 컨퍼런스 부루슈마 녹타스 2019

글: 강우석 간사(SWM 선교회)



ITN (International Turkey Network)이 주최한 이번 BN 2019는 터키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교제하고 터키의 영적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터키 영적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터키 성도들이 왔습니다. 뉴질랜드, 영국, 불가리아, 네덜란드, 아르메니아, 미국,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인도 등 터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또한 44개국에서 왔으며, 터키에서 사역해온 많은 개인과 선교 단체들이(SWM 선교회에서는 김성간, 이세웅, 강우석 참가) 참여했습니다. 대략 350명 정도가 모여 4박 5일(10/22-26일)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다, 한국, 싱가포르, 인도 등 터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또한 44개국에서 왔으며, 터키에서 사역해온 많은 개인과 선교 단체들이(SWM 선교회에서는 김성간, 이세웅, 강우석 참가) 참여했습니다. 대략 350명 정도가 모여 4박 5일(10/22-26일)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Buluşma Noktası(BN)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TN은 BN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새로운 갈래의 물줄기를 형성하기 원합니다. 많은 물줄기가 여러 갈래를 이루고 또 흩어져서 갈라지는 그런 교류의 장입니다. ITN은 터키의 영적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저 같이 고민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짐을 가지고 BN은 여섯 가지 목적과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BN 2019 목표

1. 세계 교회가 터키 교회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대화의 장소 마련
2. 터키 교회가 전진하여 새로운 시간과 계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서로 간의 건강한 대화와 토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4. 세계 교회와 목회자/지도자들 사이의 관계와 터키 교회의 관계를 증진 발전시키는 것
5. 터키 복음화를 위한 기회와 그에 따른 필요를 발견하는 것
6. 터키 내에서 성실한 사역을 위해 세계의 파트너에게 섬길 자를 제공하는 것

BN 2019 가치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2. BN 2019는 터키와 터키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3. 터키 교회들이 BN에 대한 소유권과 주인 의식을 갖기 원합니다
4. 예배와 기도
5. 터키 교회와 사역에 중점을 두고 '터키만의 의제'에 집중합니다.
6. 희생과 영적 전쟁에 대한 성숙하고 성경적인 이해를 원합니다.

BN 2019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목표와 가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고민을 그룹 토론 형식으로 나눴습니다. 중간중간 모두가 모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일

정의 대부분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많은 사람들이 깊은 토론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토론 주제로는 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됨 2. 터키 교회가 당면한 문제 3.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 4. 음악, 예술, 미디어 및 예배 5. 사회의 존재 참여 6.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 7. 계속 진행되는 예배와 기도 8. 개인 기도 사역 9. 글로벌 네트워킹 및 교환 등이 있었습니다. 난민 사역, 여성 차별 문제, 교육, BAM 등 한 가지 이슈에 집중된 세션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션을 아우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BN 2019 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세계 교회와 터키 교회의 파트너십입니다. 터키를 위해 외국인들이 1961년부터 주도적으로 해온 선교 운동의 바통을 이제는 터키 교회에게 넘겨주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외국인 선교사들은 터키 복음화를 위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터키 교회가 서기 시작하자, 많은 재정과 인력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는 터키 교회가 이 흐름의 주체가 되기 원합니다. 외국인들이 각자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터키 교회를 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이제는 터키 교회가 스스로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실행하며, 완수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외국의 지원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터키 사역자들이 BN2019에서 고백하듯 터키 교회는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혼자 독립하고 어른으로서 행동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터키 교회는 아기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세계 교회가 어른으로서 아기인 터키 교회의 필요를 결정하고 필요를 채워줬다면, 이제는 터키 교회가 청소년으로서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세계 교회가 인내하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세션에서 말씀을 나눠 주신 터키 현지 사역자의 설교가 많은 이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에스겔서 37장을 인용하며 죽은 뼈가 생기를 얻어 살아나듯 터키 교회도 일어나 두 발로 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

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겔 37:9-10)

에스겔의 말씀을 나눠주셨던 터키 현지 사역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키우듯 저를 믿어주고 세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저는 악기도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저를 지지해주고 찬양 인도자로 키워주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저를 믿고 기다려주었듯이, 오늘의 터키 교회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그는 에스겔에 있는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으며 1961년에 해외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간절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뼈를 살리실 것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터키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터키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터키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주님께서 준비해주시는 부흥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후, 그는 세계 교회를 위해 다 같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서로 포옹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터키와 세계 교회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일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를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터키 교회는 어떤 면에서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세계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터키 교회를 도와야 할까요? 터키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실질적인 질문들에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틀을 가지고 답을 정해 놓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ITN은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하면서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문제를 공유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고 부탁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컨퍼런스 기간 동안 주님이 저

에게 주신 감동과 지식을 해답으로 제시하길 원치 않습니다. 대신 아래 나누는 세 가지 관점이 터키를 이해하고 터키를 위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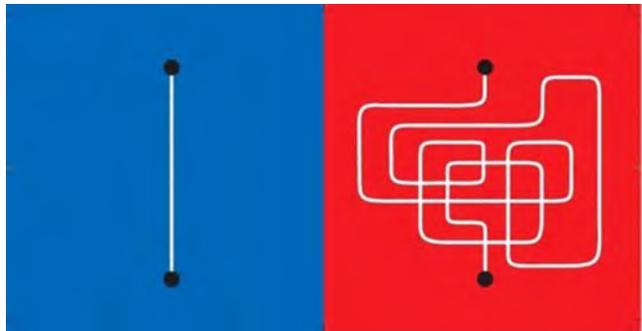
1. 문화인류학적 관점: 명예/수치의 문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나라와 이슬람의 터키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명예/수치 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크게 죄책감의 문화 (guilt culture), 수치의 문화 (shame culture), 그리고 두려움의 문화 (fear culture) 셋으로 나뉘지며, 많은 사람들이 유럽 중심의 서구 사회 (죄책감의 문화)와 중동권 (수치의 문화)을 자주 비교합니다. 서구 기독교 사회는 죄책감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터키는 아직 수치심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 (Ruth Benedict)는 일본 문화에 대한 책 '국화와 칼'을 통해 동양 문화는 수치심이 그들의 행동양식을 정하고, 서양 문화는 죄의식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 전합니다. 서구 사회 속 죄의 문화가 중요시 하는 것은 내 행동이 내 양심에 저촉되는가입니다. 본인이 가진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스스로가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수치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내 행위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서구 사회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중심인 서구 사회와는 다르게 터키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명예와 수치는 본인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 보면 서로를 높이고 칭찬하며 나이 많은 어른을 높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인들은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명예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이런 문화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교회는 1세대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윗세대의 축복과 인도함 가운데 사역하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터키는 복음을 대하는 자세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개인을 중요시하는 서양인에 비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향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족 단위의 전방위적 사역이 필요합니다. 관계 형성 후, 복음이 유기적으로 공동체 안에 스며들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은 세계 사람들을 위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인류학적 구분은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는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그 예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두 문화권이 가진 대화 방식의 차이를 나눴습니다. 합리적 사고와 효율을 중요시하는 서양인들은 직선적이고 직접적인 대화 방식을 선호합니다. 목적을 감추지 않고 필요한 말을 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터키는 완곡하고 간접적인 대화 방식을 추구합니다. 서구 문화에 익숙한 제 입장에서는 대화의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기에 대화의 핵심이 불명확한 이 방식이 답답하게 여겨졌습니다.



직접적인 대화 방식과 완곡하고 간접적인 대화 방식

세계 교회가 터키에 와서 현지 사역자들과 동역할 때, 이런 문화적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판단 정죄하며 결국 불신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터키 문화에 익숙한 한 사역자분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세시간 대화를 하면 진짜 중요한 대화는 마지막 십분에 다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터키 사람들이 우리의 소통 방식에 맞추기를 바라지 말고 겸손히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 민족주의적 관점

터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터키 국기와 국부 무스타파 케말의 사진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게 큰 국가가 건물 한 면을 덮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 나라에 대한 터키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터키는 소아시아와 지중해를 기반으로 동로마 제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정복했던 오스만 제국(투르크 제국)의 영광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터키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는 달리 세속주의를 채택하며 서구화, 근대화에 앞장서 왔으며 터키 민족주의를 계속 지향해 왔습니다. 민족주의는 세속주의로 나라를 이끌어 온 케말주의, 국가의 방향을 바꿔 이슬람주의로 회귀하려는 에르도안 정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터키를 변화시키려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기도 중보자로서 우리는 터키의 영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민족주의가 터키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장점

터키 교회는 민족의 소명을 갖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8,000만명 터키 인구 중 고작 6,000-8,000명이 개신교 기독교인이라는 참담한 현실 앞에 현지 사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민족의 부흥을 꿈꾸며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ITN은 주기적으로 터키 교회 1세대 사역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서로 격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터키 교회 지도자들은 터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속 토의하고 제안합니다. 각자 따로 일하기보다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 덕분에 터키 교회는 단단한 토대를 기반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지금 터키 교회가 원하는 것은 세계 교회가 이 기반과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지 세계 교회가 새로운 프로젝트와 사역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단점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터키 교회의 아쉬운 점은 그들이 너무 터키인 복음화와 터키 교회 부흥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많은 시간을 터키인 교회의 고민을 듣는 것에 할애했습

니다. 시리아, 이란, 아프간 난민들이 터키에 와서 많은 교회를 시작하고 있음에도 난민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터키에는 시리아 난민만 35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시작하기 며칠 전, 터키와 쿠르드족의 전투가 있었음에도 쿠르드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터키 땅 안에 다른 민족의 교회가 서는 것에는 무관심하면서도 터키 교회가 해외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소망을 비쳤습니다. 1세대를 대표하는 한 지도자는 유럽 등지에 터키 교회를 세우길 소망하며 이것을 비전으로 모든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터키 사역자들의 관심이 터키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한국이 그랬듯이, 터키인에게 터키 교회의 부흥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터키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터키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교회도 부흥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터키 땅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만 해도 유럽, 아프리카, 뉴질랜드, 미국 등 전세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인도에서도 왔습니다. 인도도 아직 온전히 복음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터키까지 왔습니다. 이웃 국가이자 터키로부터 대학살을 당했던 아르메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지금 엄청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터키를 저주해 온 아르메니아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리셨습니다. 지금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은 터키를 용서하며 터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난민들을 통해 터키에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란, 아프간, 시리아 교회 등이 터키 전역에 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 터키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행 17: 24-25)

컨퍼런스에서 한 여성 사역자가 위의 말씀을 나눠 주었습니다. “구약부터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며, 우리가 있건 없건 하나님은 인류 구속사를 완성시키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내가 어디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실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목하자”. 그녀는 자기가 사랑하고 오래 사역했던 이스탄불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주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가고 낯선 문화를 배우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이 분의 고백이 많은 이들을 겸손하게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터키 교회가 이웃 나라를 통해 주님이 터키에서 하시는 일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의 난민 교회는 터키 교회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으며 터키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터키 기독교인들은 아르메니아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과거의 일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터키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듯이, 터키 교회가 민족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주목할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터키 교회 안의 연합 뿐만이 아니라, 터키 땅 위에 있는 모든 열방의 교회가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전세계에서 드러지는 터키를 향한 중보기도가 열매를 맺어, 터키 땅 위의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같이 한 영으로 예배하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3. 역사적 관점

전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터키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는 에덴에서 흘러 나온 셋째 강과 넷째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히데겔과 유브라데입니다. 저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두 강의 발원지가 터키입니다. 아라랏 산과 노아의 방주도 터키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떠난 땅 하란도 터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도 터키에 있습니다. 그

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도 터키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속사의 주무대가 바로 터키입니다. 그런 이 특별한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 명도 안된다는 경악할 만한 사실이 오히려 저를 흥분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번영했던 유럽에 붙어있으면서도,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현 이스탄불)가 있었던 땅이면서도, 사도 바울 선교여행의 제일 큰 수혜자이면서도, 이 땅 복음의 씨앗에 오랜 시간 씩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엡 1:9)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섰던 이 땅에 거의 2천년 만에 다시 교회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오랜 역사에 비해 터키 교회의 역사는 너무나 짧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해외 선교사의 터키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에 신약성경 번역이 시작됐고, 1988년에야 터키어 신약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구약성경이 터키어로 번역됐습니다. 터키 교회가 얼마나 젊은가 하면, 구약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갖게 된지 이제 20년도 채 안됐습니다. 한국은 성경을 한국어로 갖게 된지 백년이 넘었습니다.

긴 역사를 가진 이 땅에 드디어 터키 교회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도 저와 같이 흥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터키 땅에 터키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구속사를 시작하고 첫 열방 교회를 세웠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마지막 교회들을 세우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신다면 젊은 터키 교회의 성장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직 어리기에 터키 교회는 앞으로 여러 면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 중 두 가지 문제만 기도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세대 교체입니다. 터키 교회는 세대교체를 이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1세대 지도자들의 열정과 믿음이 반석이 되어 새로운 리더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컨퍼런스에서 미디어 사역,

교육 사역, 관광 사역, 찬양 사역, 그리고 인터넷 (SNS) 사역 등 청년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역들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둘째,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터키에 약 18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 성도가 100명이 넘는 교회는 손에 꼽습니다. 성도들은 십일조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신실한 청년들은 세계 교회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온전한 의미에서 자립한 터키 교회는 몇 되지 않습니다. SWM 선교회의 교회 개척운동을 통해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를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교회가 터키 교회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터키 현지지도자들은 컨퍼런스 기간 동안 SWM 선교회가 2010년에 했던 UPM (United Prayer Movement) 에베소 연합 중보 기도회를 몇 번 언급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컨퍼런스 중간 중간 같이 기도할 때, 한국식으로 기도하자며 통성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원래 터키 교회는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터키 땅에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저희가 사명을 갖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제목

- 터키 교회 안에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질적인 영적 성숙뿐 아니라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터키 교회와 글로벌 교회가 아름답게 동역하여 터키와 중동의 복음화 및 세계선교의 미완성 과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K B P 비전트립



글: 손강호 집사(KBP 이사,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KBP는 Kingdom Business Partners의 약자로 이슬람권의 교회개척 등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돕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재단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 기업인들로 구성된 KBP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2019년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터키에서 첫번째 비전트립을 가졌습니다. KBP의 이사 8명, 회원 4명이 비전트립에 참가하셨습니다. 이번 비전트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 그리고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첫째날,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김진영, 김성간, 이세웅 그리고 안바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바울 사역자는 이스탄불에서 1200km 떨어진 안디옥에 2007년 파송받아 12년간 사역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에는 터키, 아랍어 공동체가 있으며 공식적인 크리스천 교육을 하기 위해 SWM 선교회와 함께 기독교 재단(VAKIF) 등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경험을 선교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김진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사역자 파송 분포의 불균형 문제와 선교헌금 사용의 불균형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10만 명의 선교사 중 85%가 교인이 있는 지역에 있다는 것과 백만명의 무슬림 가운데 단지 3명 미만의 사역사만이 사역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헌금 \$1 중 미전도종족 선교에는 단지 0.5 센트만 사용되고 있어 사역 헌금 사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터키 8,300만 인구 중 성도숫자는 6,000명이라는 것과 선교사가 1,500명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된 나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 로마 마차 경기장 등을 돌면서 터키 역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갔습니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술탄은 자녀들을 이슬람 제국에 흠어놓고 가장 똑똑한 한 명을 술탄으로 훈련하여 세우고 다른 자녀들은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술탄은 1, 2대를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과 결혼했고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또한, 터키사

람은 한국을 유일하게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투르크 민족이 옛날 몽골, 중국 서쪽에 있었고 언어도 알타이어로 문법이 유사하고 문화도 비슷합니다.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앞

셋째 날, KBP팀은 안탈리아(아달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여 안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아스펜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탈리아는 인구 150만 명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으며 독일인들이 은퇴한 후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키의 가장 큰 산업이 관광산업인데 관광산업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안탈리아입니다.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아스펜도스는 당시 귀족이었던 형제 2명이 21년 만에 건립했다고 합니다. 아스펜도스의 원형극장의 벽과 바닥은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마차 경기장이 없으며, 글래디에이터들의 싸움 장소였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객석 자리를 만들 때 언덕이 필요했지만 이후 로마 시대에는 평지에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극장은 원래 신을 위해 존재했기 때문에 공연을 시작하기 전 신에게 제사했다고 합니다.

9천 명 정도 수용 가능하며 현재에도 매년 여름마다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 연합중보기도회를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이즈밀(서머나)를 방문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즈밀은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었던 지역으로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300만 명의 인구에 에게해를 끼고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도시로서 이슬람을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80년 동안 현재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온도는 매우 온화합니다. 김진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방해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밟는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째 날, “십자가의 길, 도”라는 주제로 김진영 목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사역의 길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선교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진영 목사님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SWM 선교회 연합기도운동 가운데 있었던 영적 싸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기도운동을 통해 여러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그 열매로 교회개혁 운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KBP가 이러한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담대히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진영 목사님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합기도운동 가운데

있었던 영적 싸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기도운동을 통해 여러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그 열매로 교회개척 운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KBP가 이러한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담대히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터키 정부 비즈니스 투자 설명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터키에 투자를 원하는 모임이었고 KBP이사님들의 비즈니스 영역과 관심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터키가 유럽에 속하며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이점이 있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이슬람의 영적지배 아래에 있기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풍성함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서로 공감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후, 앙카라의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앙카라 성을 방문했습니다. 600개의 전통집이 성 안에 남아 있지만 비잔틴 시대의 집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성 위에 올라가 앙카라를 내려다 보며 앙카라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이 여기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앙카라성

KBP팀은 이후 앙카라 AIC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2007년 중보기도 준비위원이셨던 사역자님들과 만나 교제하며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나눴습니다. 앙카라의 여러 사역자님들의 구체적인 사역과 기도제목을 들으며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날, 김진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마엘과 무슬림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아래에 있음의 증거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예언을 이사야 60:6-7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 옛 안디옥인 하타이, 베드로 동굴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안디옥 개신교회를 방문하여 안바울, 박조디 선생님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레학교의 운영과 이 학교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 들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개신교회의 앞으로 계획을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첫째, 기독교 재단(VAKIF) 설립을 통하여 터키 전역 및 이슬람권에 교회 및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돕고 기회 제공을 통해서 복음과 빵이 함께 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는 터키 및 이슬람권 선교와 교회개척을 위한 훈련 및 교회 개척자 양성센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기독교 재단이 세워지면 복음전도 사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기독교 학교를 정식 학교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헌 옷 등을 합법적으로 도네이션을 받을 수가 있고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중고 가게를 지원하면서 구제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립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교인인 마흐멧 형제의 가게를 방문하여 그의 사업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사업을 통하여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사님들과 협의하였고 차후 임원 모임에서 구체화하여 이사님들에게 보고하



기로 했습니다.

일곱째 날, 김진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기 원한다는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사명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 현지인 교회인 갑바도기아 구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사헌, 예수아와 압신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역의 진행상황과 기도제목을 나눠주었습니다.

사헌은 아내와 두 자녀가 있으며 키크복싱 선수 출신으로 10년 동안 카이세이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내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비전입니다. “두 달 전에 새 교회를 여는 기회가 있었고 예수아가 앙카라에서 와서 우리를 돕고 있고 예수아는 좀 더 훈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BCC, 성경을 공급하는 단체에서 방송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200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성경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서 예수를 소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난민과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으며 현재 22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에는 시리아 난민들의 숫자가 줄기 시작하지만 시리아, 아프칸, 이란의 난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과레메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또 파사바흐(버섯바위)와 로즈 밸리를 돌아본 후, 호텔로 돌아와 비전트립 평가회의를 통해 각각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공식적인 이사회는 아니지만 예결산, 재단설립진행사항, 난민 비즈니스 자립 후원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BP 비전트립의 마지막 저녁, 이번 비전트립에 참여한 분들이 함께 모여, 평가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자 하지즈 집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앞으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SWM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영인 권사: 봄에 있었던 비전트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딸 캐더린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사정만으로는 KBP 비전트립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게 되어 감사하며 더 열심히 섬겨야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유지민 권사: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2017년에 이진수 목사님이 부임해 오신 이후에 김진영 선교사님을 만나서 무슬림에 대한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무슬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무슬림 난민을 미국에서도 섬겨왔지만 터키 땅을 직접 밟았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중고품을 파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흐멧 형제를 보았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흠어진 사역을 모아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남편은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본인은 사역을 소극적으로 감당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KBP 사역에 함께 하여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최미해 집사: 2010년 터키에 와서 어느 사역자님을 만날 예정이었는데 그 사역자님과 연락이 안되어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귀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터키를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다시 온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즈니스 탐방을 하며 마흐멧 형제의 가게를 보았을 때 어떻게 비즈니스를 후원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대한 일기를 써서 9명의 지인에게 보냈는데 몇 분이 우리의 사역에 후원하겠다는 반응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섬겨야 하겠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용진 집사: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비전트립이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에 감동이 있었고 선교사님들께서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고 또한 많은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여 앞으로의 사역에 책임감을 느끼는 여행이었습니다.

허용진 장로: 13년 전에 터키 땅을 밟았을 때 김진영 목사님이 참 힘들어 하던 시기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독교 방송도 있고 여러 난민들이 들어와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보고 지금이 대 추수의 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역의 결실을 바라보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개척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영진 권사: 사역에 대한 막연한 지식만 갖고 있다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사역에 대하여 창조적인 발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는 이사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BP 사역이 구호만 외치고 가는 사역이 아니라 실천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KBP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KBP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적인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태규 형제: 너무 좋은 분들과 여행을 했는데 헤어지는 시간이 가까워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개척 영상을 만드는 일로 터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트립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일들을 직접 보여주고 계심을 느꼈고 저의 시야를 넓혀주시심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디어의 역할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행하였던 일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알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진웅 목사: 두번째 오는 터키 땅입니다. 첫번째 터키 땅에 왔을 때는 연합에 대한 감동이 있어 좋았고 지금은 터키의 영적 분위기가 많이 변화된 느낌이 들어 더욱 좋습니다. 터키 땅을 다니면서 영적으로 황량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고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민학교에서 난민 아이들을 만나며 나의 영이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이 식어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미디어를 통해서 불꽃을 지피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졌습니다. 감사한 내용은 크리스천 기업가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짧

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면서도 본 사역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손강호 집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에 있지 않고 섬김에 있음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쉬운 세계 하나님께서는 섬겨야 할 무슬림을 보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지식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심을 느꼈고 모든 사역은 사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는 비전트립이었습니다.

김진영 목사: 이번 비전트립에 참여하신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 사역의 마중물을 감당하는 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를 택하여 여기에 참여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산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월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켰으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만남과 교제를 가지지 못하신 많은 비즈니스 하신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터키 쿠르디스탄 이집트 2020 킹덤 아웃리치

1. 킹덤 아웃리치: 터키, 쿠르디스탄, 이집트

일정: 4월 16일(목) - 25일(토) : **터키 현지시간**

사역내용: 복음전파, 교회개척, 난민사역

4-10명이 팀으로 구성되어 터키에 있는 교회가 개척되었거나 개척될 지역에 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항공권은 45일 이전에 구입해야 저렴하기에 각 교회에서 아웃리치팀 구성을 2월 말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터키 비전트립

일정: 4월 13일(월) - 22일(수) : **터키 현지시간**

사역내용: 갑바도기아, 수리아 안디옥, 계시록 일곱교회, 이스탄불 방문

위의 비전트립 방문 외에 뷰옥아다섬 사역(4월 23일)과 연합기도회(4월 24일)의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가 일정을 원하시는 분은 4월 25(토)일에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국제항공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등록문의: 김영진 간사(714.999.8639) | 한국: 임동혁 간사(010.8632.0278)



Unfinished Task

400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s)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400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s)을 위한 연합 기도운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PD(Global Prayer Digest)와 조수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미전도 종족, 400종족을 선정하여 400일간 매일 한 종족을 소개하면서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운동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SWM선교회에서는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의 파트너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 한인디아스포라 기도네트워크를 통해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제목을 알리며 연합기도운동을 진행합니다.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에 참여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땅끝까지, 400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우리의 연합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은
다음과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 기간
2019년 10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 책자를
받아보시고 매일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시고 (연합기도 운동 책자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교회나 개인 기도자는 SWM 선교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400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홈페이지 (<http://globalupm.net/gpd/>)를 방문하셔서,
매일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시고.



<http://globalupm.net/gpd/>

관련문의: 이은옥 간사(714.999.8639)

관련문의 (한국): 임동혁 간사 (010.8632.0278)